

지난해 쌀 재고량 농협 ↓ 전복은 ↑

농협 쌀 재고량 56만2000톤으로 전년보다 5.7% 감소... 도단위는 11만 7000톤 전년보다 1만3000톤 늘어

5월말 기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016년산 쌀 재고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전복의 재고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2016년산 정곡은 총 56만2000톤으로 전년 59만16000톤에 비해 3만4000톤(5.7%) 감소했다.

도 단위 재고량은 전북이 가장 많은 11만7000톤을 나타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만3000톤 늘었고, 이어 충남이 11만6000톤으로 재고량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이 9만6000톤, 경기 7만7000톤, 경북 6만6000톤 등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도는 2만톤 가량의 재고량을 기록 중이다. 특히 전년에 비해 전남의 경우 재고량이 3만5000톤 줄어지면서 큰 폭의 재고량 감소세를

보였다. 농협의 재고량이 줄어든 이유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1월부터 5월까지 농협이 판매한 정곡량은 총 80만9000톤으로 전년 동기 74만3000톤에 비해 6만6000톤(8.9%) 늘어났다. 또 월평균 판매량은 16만2000톤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1만3000톤(8.7%) 증가할 수 있다.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전반적으로 재고소진 부담을 느낀 농협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밀어내기를 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6월 곡물관측을 통해 '산지유통업체의 쌀 판매량이 늘어났는데, 이는 재고부담이 큰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저가출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5월말까지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인 도는 충남으로 월 평균 18만5000톤을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전북이 16만9000톤, 전남 14만7000톤, 경기 8만3000톤, 경북 7만7000톤 등의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저가비 지역의 판매가 두드러진 모양새다.

5월말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정곡 기준 재고량이 56만2000톤으로 집계됨에 따라 1~5월 평균 월 판매량 16만2000톤만큼 판매될 경우 재고소진 시기는 9월 중순경이 될 것이라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과거 3개년간 5~9월 월평균 순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지유통업체가 보유한 재고는 10월 상순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특히 올 추석이 지난해보다 20여일

가까이 뒤로 밀린 10월 4일이라는 점에서 산지 농협들이 재고미를 소진하는 데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곡 수요가 추석을 기점으로 이뤄진다는 점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재고량이 줄어들면서 산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봤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면서 "대형유통업체에서도 쌀 판매가 줄어들면서 쌀 품목의 판매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경험치로 추석이 뒤로 밀리면 구곡 재고를 처리하는 데 다소 여유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생종 수확기가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기후변화에 따라 수확기는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여성 확인정비사 배출

국내 LCC업계 최초 홍진씨 입사



이스타항공이 국내 LCC업계 최초로 여성 확인정비사를 배출했다. 이스타항공 '홍진(29)' 정비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홍진 정비사는 4년제 경영학과를 졸업 후 금융계열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4년 국제항공 공전문학교를 졸업 후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2015년도에 이스타항공에 입사하였다.

당사에도 홍진 정비사는 LCC업계에서 최초의 라인 정비사로 채용되어 업계 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업계 특성상 여성인력비율이 낮

은 분야로 알려져 있는 항공정비분야에서 이스타항공의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약 10%정도가 여성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실제 현장 정비사(라인 정비사)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인력은 '홍진' 정비사를 포함해 4명으로, 상대적으로 남성 인력이 많은 업계 특성을 고려하면 이는 타 LCC 대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홍진 정비사는 "제가 LCC 첫 여성 확인 정비사가 되는데 선배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스타항공은 상하관계 속에서도 부하직원의 의견을 수용하는 유연한 분위기가 조성에 있어 이러한 분위기가 29만시간 무사고 운항의 안전 정비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김병원 농협 회장, AI 방역추진상황 점검

김병원 농협 회장이 12일 AI가 발생한 익산시 용동면의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익산군산축협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전북지역은 지난 3일 군산 서수에서 AI 발생 이후 닭, 오리 등 22농가 1만 4,692수를 살처분 했고, 농협은 생석회 3,100포, 소독약 200병 등 발생농장 등에 방역용품을 긴급 공급했다.

또한 공동방제단 및 NH방역지원단

차량을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가금농가 등 확산농가에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병원 회장은 "농업인의 사름이 깊어지지 않도록 AI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몸과 마음의 피로도도 높겠지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며, "범농협 선제적 삼시방역시스템 구축을 통해 AI등 가축질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농진청, "주요 식량작물 파종 한계시기 준수 해야"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물 부족 현상 발생 따라

농진청홍청은 최근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어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늦어진 파종에 대비해 각 작물의 파종 한계시기를 소개했다.

현재까지 평년 75%선을 유지하던 전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60%선 아래로 내려가 가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164시군의 90%가 가물 주의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물 현상으로 적기 벼 모내기나 적기 밭작물 파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벼는 6월까지 이앙하면 수량 감소가 크지 않다. 그러나 7월에 이앙을 하면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수량 감소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앙 한계시기를 준수해야 한다.

밭작물 파종 한계시기로 콩은 7월

상순~중순, 팥은 7월 중순~하순, 참깨는 6월 중순, 들깨는 7월 상순, 꽃땅콩은 6월 중순, 잡곡(조, 수수, 기장)은 6월 하순~7월 상순이다.

각 작물에 따라 한계시기 이후에 파종하면 생육환경이 나빠지고 생육기간이 짧아져 수량이 감소되며 대파 작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모내는 시기가 늦어 모를 못낸 농가에서는 대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데 7월 중하순에 파종해 9~10월에 수확할 수 있는 메밀, 팥, 녹두, 시금치, 열무, 열갈이배추, 가을감자, 사료작

물 등이 있다.

또한 한계시기에 파종할 경우에는 수량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육묘 이식재배를 활용하거나 파종량을 늘려 단위면적당 개체수를 높이면 수량 증대에 도움이 된다.

농진청홍청 이근휘 작물재배생리과장은 "최근 봄 가뭄, 마른장마 등 물 부족으로 파종을 제때 못한 경우 작물별 파종 한계시기를 준수해야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계시기가 지났다면 대파 작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중기청,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실시

전북중소기업청이 1인 창조기업의 우수 제품과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디자인개발, 해외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선택형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중 수시로 고객의 마케팅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1차(3월), 2차(5월)로 구분해 지원하며,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1인 창조기업은 2차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인재용 기자

이번 사업의 참여기업은 6개 세부과제 중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지원할 최대 2,000만원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 디자인, 해외시장조사 등 지정형과제는 해당분야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기관 중에서 창업진흥원이 전문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참여기업은 지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광고홍보, 전시회참가, 인증획득 등 개방형과제는 과제 수행기관의 제한이 없으며, 참여기업이 자체적으로 마케팅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인재용 기자

IH-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진행

IH 전북본부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9일 파랑새 그룹홈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

파랑새 그룹홈은 그간 비가 새고 열악한 주방 시설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겪어와 우선 개선 그룹홈으로 선정됐고, 시설개보수, 장판교체, 주변환경정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IH 전북본부 김완희 본부장은 "아

이들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원장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생활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경개선사업은 IH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 4월 후원협약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진행된 것으로 7월 11일까지 8개 시설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의시설 지원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www.j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미나리

장미

배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 오태식
상임이사 (경제) 나병훈

이사 김대천,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중앙회